
2020년 제7호 방송심의보고서

2019. 2. 7. ~ 2. 13.



한국정책방송원
KTV 국민방송

프로그램	여러분의 북마크		
방송일자	2020. 2. 7.	시청률	0.014

【총 평】

<여러분의 북마크> 제55회는 최근 북한소재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이 방영됨에 따라 드라마 배경이 되는 평양에 대한 관심도가 증대하고 있어 통일연구원의 홍민 북한연구실장을 초대하여 북한사람도 잘 모르는 도시인 평양에 대한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주었다. <북마크 TV>에서는 공연인원 10만 명으로 기네스북에도 오른 '대집단체조'의 이모저모를 영상과 함께 보여줘 흡인력을 제고했다.

'북한 도시를 이해해야 평화가 보인다'는 소개처럼 평양의 볼거리와 일상을 소개함으로써 같은 민족으로의 친근감을 느끼게 해준 구성이 프로그램의 기획의도와 완성도를 살렸다. 특히 평양시민 되기, 평양에서 건물주 되는 법, 서울과 평양의 장단점 등의 소개는 평양의 달라진 모습, 새로운 모습을 일깨운 시도여서 이목을 끌었다. <단박톡>에 출연한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평양에 여러차례 방문한 경험을 살려 북한의 모습과 시민들의 일상, 달라진 점을 실감나게 설명해 몰입감을 제고했다.

【구성 및 내용】

■ 단박톡 → 북한 상위 1% 삶, 드라마 속 '평양해튼'의 진실은?

북한소재 드라마가 방영되어 드라마 배경이 되는 평양에 대한 관심도가 증대됨에 따라 북한의 수도인 평양에 대해 서울과의 닮은 점, 통치자에 따른 평양의 도시계획 등을 비롯해 드라마 속 평양, 현실성 있나?, 평양과 서울이 닮았다? 서울과 평양의 장단점은? 등의 관심있는 토크로 시청자들의 관심도를 유발했다.

이와 함께 평양의 안내지도와 시가지 영상, 평양 상류층의 핫 플레이스 등 최근 달라진 평양의 모습을 다룬 점도 신선하고 긍정적이었다.

■ 북마크TV → 세계 유일, 북한에만 있는 특별한 집단 공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북한에서만 볼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대집단 체조공연에 대해 소개해주었다. 북한이 자랑하는 '대집단체조'의 다양한 모습을 영상으로 소개한 <북마크 TV>코너는 모처럼 북한 볼거리를 통해 북한의 이해를 돕는 계기를 제공했다.

1만7천명이 만들어내는 카드섹션, 의장대 칼군무 공연, 퍼포먼스, 커플 댄스, 차력쇼와 줄넘기, 오케스트라와 합창 공연 등 놀랍고 신기한 광경을 영상으로 담아낸 북한TV 모습을 리얼하게 보여줬다.

【참고사항】

17:45 '서울 vs 평양, 각각 장단점'에 대해 소개할 때 백사장에서 해수욕을 즐기던 일상적 공간이라고 했는데 한강에서의 해수욕이라는 용어가 적합한지 의문이다. 해수욕의 사전적 의미는 바닷물에서 해엄을 치거나 즐기며 노는 것을 의미한다.

프로그램	최일구의 정말		
방송일자	2020. 2. 7.	시청률	0.001

【총 평】

<최일구의 정말> 제18회는 한국 문화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에 발맞춰 한류 콘텐츠 산업 강국으로 한국 문화 위상을 높이기 위한 경쟁 전략을 살펴본 시간이었다.

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장관이 출연하여 올해의 부처 비전과 “문화로 크는 나라”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문화로 크는 나라”편에서 다룬 주요 내용은 첫째 한류 열풍 시대의 문화정책 둘째 문화의 힘, 관광산업으로 이어진다. 셋째 도쿄올림픽,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넷째 2020년 문화 정책 이었다. 특히, 오프닝으로 100년 전 문화의 힘을 예견한 백범 김구 선생의 “오직 갖고 싶은 것은 한없이 높은 문화의 힘이다”라는 메시지는 강력하게 다가왔다.

【구성 및 내용】

“문화로 크는 나라”에서 다룬 핵심 네 가지는 한류 문화 정책, 관광산업, 2020 도쿄하계 올림픽 지원과 준비 상황, 2020년 문화 정책 등이었다.

‘한류 열풍 시대의 문화정책’에서는 BTS를 포함한 한류 문화의 위상과 경쟁력에 대해 다루고 콘텐츠 산업의 3대 핵심과제를 짚어보고 한글 보급 전략, 음원 사재기 문제까지 두루 다루었다. 특히, BTS를 비롯해서 한류 열풍이 가지고 온 경제적 가치에 초점을 맞추었고 한류 확산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을 분야별로 소개하면서 기대감을 주었다. 또, 콘텐츠산업 3대 핵심전략에 관해 다룬 점은 한류열풍을 다룬 타 방송들과는 차별화된 부분이었다. 이와 함께 음원사재기에 대한 해법으로 경찰청과의 협업, 관련법 개정, 건전한 음악 유통 문화 조성 등을 다루어 의미가 있었다. 또, 한류에 대한 세계적 열풍이 엄청나게 크고 한국어를 배우고자 세종학당의 전폭적 지원을 확대하는 측면은 세계속의 한국의 위상이 한류를 통해 확고하게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문화의 힘, 관광산업으로 이어진다.’에서는 국내외 관광객들을 위한 지원 사업과 관광 육성화를 위한 전략에 관해 소개했다. 관광분야를 이야기하기 전에 한국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재방문할 의향, 국내관광과 여행평가 등에 대한 통계자료를 미리 언급해서 좋았다.

‘도쿄올림픽,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에서는 2020 도쿄 하계올림픽 준비 상황 및 선수들 안전문제, 아시아 최초로 열리는 2024년 동계 청소년 올림픽 개최 의미와 준비 계획 등을 담았다.

박양우 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행복부이자 국가경제부, 외교적 역할까지 담당한다”며 2020년 이루고 싶은 목표로는 첫째, 코로나19로 전세계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외래 관광객 2천만 명 달성, 둘째 한류콘텐츠 양성과 함께 우리나라 수출과 경제에 기여하는 기반 마련 셋째, 도쿄올림픽 성과달성 넷째, 문화 예술계 창작 여건 마련, 복지 개선 다섯째 모든 국민이 문화 예술, 관광, 체육을 즐길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프로그램	우리동네 개선문		
방송일자	2020. 2. 8.	시청률	0.060

【총 평】

<우리 동네 개선문> 제19회는 “지자체 행정착오로 건설중단, 업체 부도 등 위기...합의안 마련”과 “스마트폰 앱으로 민원 해결-대형 화물차 불법주차 해소”에 대한 민원 문제를 다뤘다.

첫 번째 아이টে은 행정 기관과 현업자 혹은 지역민 간의 개선 사항 문제를 해결했는데, 행정 착오로 인한 중소기업의 위기를 객관적으로 대변한 점이 돋보였다. 두 번째 아이টে은 주민들의 온·오프라인 자치 활동을 통해 지역민들의 불편 사항을 지역민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담았다. 특히 신국진 기자는 해당 규정의 모순과 아파트 예비 입주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배려 멘트를 하였는데 기자의 윤리와 절제미를 잘 보여주었다. 어떤 사안에 대해 기자가 바라보는 이러한 자세는 어찌 보면 기자로서 당연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리포트 때에 놓치지 않고 언급했다는 점에서 KTV 기자에 대한 신뢰감과 KTV 채널 이미지 향상, 시청자와의 신뢰에 큰 도움을 줬다.

【구성 및 내용】

<우리 동네 개선문> 제19회 첫 번째 내용은 지자체의 행정착오로 인한 논란이어서 눈길을 끌었고 두 번째 내용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행정에 참여해서 생활 속 불편사항을 해결해 나가는 매우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내용이었다.

■ 지자체 행정착오로 건설 중단

경기도 고양시의 행정담당자의 실수와 아파트 공사 중지 위기, 주민 입주 불가능한 위기에서 기분 좋은 사례를 소개하였다. 환경영향평가로 인한 행정착오를 솔직하게 지적하고 이를 해결해가는 모습을 차례로 소개했다. 특히 시공사 부도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는 상황이라 시사성도 높았다고 생각된다. 지자체의 행정착오로 인해 시공사인 중소기업 건설 사업체의 억울하면서도 난감한 사연을 균형있게 잘 다루었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나서 협의안을 제안하고 시공사와 지자체가 협의해 나가는 과정을 소개했다.

■ 스마트폰 앱으로 민원 해결

광주시 북구 일곡동 마을 주민들과 광주시 동구 학운동 주민들의 앱을 활용한 자체 민원 해결하는 현장을 담았다. 광주시 북구 일곡동 민원은 대형 차량의 불법 주차 및 사고 위험으로 생긴 문제를 주민들 스스로 해결하는 모습을 담았고, 민원 해결 앱인 ‘마을e척척’을 통해 민원 지도를 만들고 밤샘 주차 캠페인을 실시한 덕분에 민원이 해결되어 가는 과정을 다뤘다. 대형화물차들의 불법 주차로 인명 사고가 일어났다는 점도 강조하여 개선 활동을 더욱 부각시켰으며, 불법 주차를 하고 있는 운전자의 입장도 다루었다는 점이 좋았다. 학운동 도로변 쉼 의자설치는 실제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행정이 무엇인가 하는 점을 강조하는 의미로 큰 역할을 해주었다.

프로그램	PD리포트 이슈 본(本)		
방송일자	2020. 2. 9.	시청률	0.000

【총 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상황이 심각한 수준이다. 서울 한복판 백화점까지 문을 닫고 자동차 공장 가동이 전면 중단되는 등 경제 불안감도 증폭되고 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가짜뉴스까지 잇따라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PD리포트 이슈 본(本) 제286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가짜뉴스를 차단하라!”를 긴급 기획해 방송한 것은 시의적절했다. 특히 사회불신과 불안을 조장하는 가짜뉴스의 행태와 공통점, 파급 악영향, 가짜뉴스 차단 방안 등을 상세히 분석, 제시한 짜임새 있는 구성이 돋보였다. 탐사보도 형식으로 현장을 확인 취재하고 이동경로를 탐색하는 방식으로 소문에 대한 팩트체크를 하여 소문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내는 진행방식이 설득력을 높였다. 가짜뉴스에 강력 대응하는 대통령의 의지, 질병관리본부의 방침, 가짜뉴스 모니터링과 유입차단에 나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활동을 소개한 부분도 국민불안을 불식시킨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KTV의 정체성을 제고한 부분으로 호감을 준다.

【구성 및 내용】

최근 사람들에게 우려를 넘어서 공포감까지 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행을 빌미로 무분별하게 전파되는 가짜뉴스를 주제로 일반 대중들에게 알려진 근거없는 민간요법, 가짜뉴스에 대한 특징과 정확도 및 대응, 그리고 중국인에 대한 혐오와 과거 메르스 괴담 등에 대해 해당 기관을 방문해 인터뷰이의 생각을 잘 전달해 주었다.

■ 신종 코로나 가짜뉴스를 차단하라!

최근 인터넷 등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뉴스들이 많다. 자극적인 뉴스제목에 의해 해당 기사를 들여다보면 가짜뉴스가 아닌가 할 정도로 의심이 생긴다. 하지만 이로 인해 근거 없는 우려와 공포감은 더 생긴다.

■ 가짜뉴스

16번째 확진자의 거주지 및 동선에 대한 가짜뉴스가 있었다. 이외에도 지역별로 확진자, 사망자 발생 등의 사회 불신을 조장하는 가짜뉴스가 많이 생산되는데 공통점을 보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한 뉴스 및 공식발표보다 신속하고 구체적이라는 특징이 있고, 정부 공문이나 회사 내부 양식과 유사한 형식의 문서를 활용한다.

■ 가짜뉴스의 반복 이유

정부의 정보 공개 공백의 틈을 비집고 불필요한 정보, 혹은 지나친 정보들이 활개친 것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의 정확한 정보 전달이 필요하다. 한편,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가짜뉴스 파악에 들어갔고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이 진행 중이다. 바이러스 감염속도보다 가짜뉴스 전파속도가 더 빠르다고 지적하고 “가짜뉴스를 만들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이야기는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프로그램	귀농다큐 살어리랏다		
방송일자	2020. 2. 9.	시청률	0.221

【총 평】

<KTV 귀농다큐 살어리랏다> 제19회는 “두루미처럼 사람처럼”편으로 강원도 철원 평야에서 철원 오대쌀 농사를 지으며 두루미 탐조 보호대로 활동 중인 농부 최종수(56)씨의 일상을 담아냈다. 주인공 최종수씨의 겨울철 주 활동 내용은 지역 농부들과 아내, 그리고 딸과 함께 두루미들의 겨울철 나기를 돕는 공생자이자 보모이다. 철새들의 낙원인 강원도 철원은 두루미들의 천국이다. 이곳에서 주인공은 두루미들의 생계와 환경 활동을 위해 농사를 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두루미 사랑이 남다르다. 오늘 방송에서는 두루미를 찾아 철원도 토고 저수지를 찾는 관광객을 위해, 두루미들의 겨울 먹이를 위해 공들이는 주인공의 독특한 심성을 지닌 인물을 잘 표현하였다.

【구성 및 내용】

철새 따라 철원으로 온 농부 최종수 씨의 귀촌 26년차 모습을 담아냈는데 그 동안 여러 직업이 소개됐지만 환경운동가는 또 처음이라 생소하기도 하고 그만큼 이색적인 풍경도 많이 소개가 되어 흥미로웠다. 방송 전반에 걸쳐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철새 소리를 화면 가득 담아내어 운치가 있었고 때로는 신비롭게, 때로는 정감 있게 음악과 철새 소리를 섞어 내어 또 다른 묘미를 선사했다.

철원이라는 지역 특성, 얼음 절경, 끽끽 언 강변에서 눈썰매 타는 장면, 울겨울 보기 드물었던 눈 펄펄 날리는 풍경, 겨울철새 두루미라는 소재 등, 겨울 느낌이 강한 내용이라서, 내내 겨울 특유의 맛을 느끼게 하는 방송이었다.

농부이자 두루미 환경 탐색가로서의 주인공 면모를 ‘사랑’과 ‘행복’이라는 키워드로 잘 담아낸 아이템 기획이었다. 임진강과 한탄강의 넓고 아름다운 풍경을 담은 주인공의 선택과 아름다운 심성을 잘 드러낸 연출과 구성이었다.

두루미를 보호하는 일의 자부심은 물론이고 두루미로 인해 맺은 가족과의 인연에 감사하고 자연이 주는 선물과 인간과 자연의 공생 관계를 소소한 장면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언급해서 또 다른 감동을 주었다. 소박하지만 결코 소박한 삶이 아닌 주인공 최종수씨를 통해 세상의 따뜻함을 읽을 수 있었고, 겨울 철새들의 생명력을 품은 두루미를 나침반 삼아 인생 지표로 삼은 주인공을 통해 두루미와 인간의 특별한 인생 2막이었다.

제목이 ‘두루미처럼, 사람처럼’이었는데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들렸으나 방송을 보고 나니 사람처럼 산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자연스럽게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내용이었다.

【참고사항】

02:35 주인공 최종수씨의 소개에서 자막표기와 내레이션이 달랐는데 같아야 한다. 자막은 귀촌 26년 차라고 표기되었으나 내레이션은 25년 차 농부라고 언급했다.

프로그램	국민리포트		
방송일자	2020. 2. 10.	시청률	0.000

【총 평】

<국민리포트>는 최대 이슈로 떠오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다루었다. 지역사회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는 최일선 보건소의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대응 방법을 신속히 전달하는 ‘정책인터뷰’와 대학가의 달라진 풍속도를 발빠르게 스케치한 리포트 등 순발력 있고 시의성 있는 기획이 탁월했다.

특히 정책인터뷰와 대학도서관 리포트 가운데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의심 증상에 대한 대응요령을 제공해 시청자 만족도를 높였다. 또한 대학의 손 세정제와 체온기 비치, 수칙 공지는 젊은 층에게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는 캠페인 효과가 기대된다.

‘책과 함께 쉬어가요’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이 선정한 2월의 사서추천 도서를 안내해 읽을거리 정보를 제공하고 최근 독서 풍향을 가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했다. 또, 영상구성 <한국의 미>에서는 서해안 일몰의 명소 꽃지해수욕장의 낙조를 영상에 담아내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구성 및 내용】

국내 최대 이슈이자 정책의 최우선 과제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기획을 발빠르게 다루어 집중도와 주목도를 높였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는 지역사회 보건소 상황과 코로나19로 대학 도서관도 썰렁하고 면학 분위기 도 좋지 않다는 내용들을 소개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달라진 대학가의 풍속도를 보여주고 방역에 적극 대처하는 모습을 집중 부각했다.

‘정책인터뷰’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보건소 조영숙 보건의료과장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최일선에 있는 보건소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특히, 지역 보건소 역할, 감염 의심 시 대처 방안, 보건소 방문 필요한 의심 증상, 보건소 방문 시 진료 절차, 미열 감기 증상 대응 방법, 감염 여부 신속검사 진행 방법 등에 대해 알아봤다. 2월의 사서추천도서...‘책과 함께 쉬어가요’는 국립중앙도서관 사서가 추천한 도서를 소개하였다. 추천한 책 안배가 균형 있었고 책 선택이 적절하여 시청자들로 하여금 호기심을 갖게 하였다. 특히 추천도서들이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과하게 애쓰거나 남들과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학대하지 말고 지금의 자신을 조금 더 존중하자’,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으나 내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자’는 내용으로 삶의 피로를 걷어주는 효과가 있었다.

【참고사항】

‘정책 인터뷰’에서 기자는 질문을 할 때 답변을 감안하면서 중복되지 않는 질문을 해야 하고, 연출과 편집에서도 질문과 답변이 중복되지 않도록 신경써야 한다.

프로그램	사실은 이렇습니다		
방송일자	2020. 2. 10.	시청률	0.000

【총 평】

<사실은 이렇습니다>는 ‘문화재 방재, 민간에 떠넘긴 정부?’라는 부제로 지난해 프랑스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 발생으로 인해 최근 국내 문화재의 화재 관련 우려가 있는 가운데 문화재 방재에 대한 중앙컨트롤 타워가 없고 문화재청이 민간단체에 방재 업무를 위임했다는 언론의 비판에 대한 팩트체크를 진행했다.

특히, 2월 10일은 문화재 방재의 날로 2008년 2월 10일 송례문 문루가 방화로 소실된 것을 계기로 제정되었는데,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했고, 그 취지도 좋았다.

문화재 방재의 중요성과 문화재 방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재청 안전기준과에 대한 소개, 문화재 형태를 고려한 방재, 문화재 화재 대비, 재난으로부터 문화재 방재 노력, 해외의 문화재 방재 정책, 우리나라 문화재 방재시스템 수준, 문화재 방재 관련 첨단 과학 기술, 문화재 복구 등의 소재를 다뤄주었다.

【구성 및 내용】

문화재는 현존하고 있는 유무형의 자산이지만 풍수해, 화재, 산불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원형을 보존할 수 없으면 문화재의 가치를 잃게 된다. 낙산사 산물, 송례문 화재 등 문화재 소실 사례가 다수 발생했고 포항 지진 시 첨성대가 흔들리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다양한 재난으로부터 문화재 방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팩트체크1 : 화재에 취약한 우리나라 문화재?

송례문 화재 이후 문화재청의 최우선 정책은 안전이다. 국가지정 목조 문화재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문화재 현장별로 방재시설 설치하고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배치했다. 재난 단계별로 비상조직이 바로 가동될 수 있는 체계 또한 구비했다.

그동안의 문화재 화재 사고를 되짚어 보고 우리 나라 문화재 방재 시스템의 실태를 살펴 보고 개선안을 소개했다.

■ 팩트체크2 : 민간단체에 방재 업무 위임한 문화재청?

해외의 문화재 방재 시스템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문화재의 특성에 맞춘 방재 시스템을 소개하고 향후 정부와 사회의 노력을 제시했다.

미국의 경우 1948년부터 문화유산 보호 소방법 마련. 소방시설뿐만 아니라 문화재 소산과 화재 대피 지원에 대한 명문화가 이뤄져있다. 일본의 경우 사적 문화재가 많아 국가 중심 지원관리보다 단체, 개인별로 협동단체를 조직하여 기본적 방재 관리를 수행한다.

【참고사항】

11:05 우리나라 문화재 방재시스템 수준에 대한 설명에서 사용한 ‘문화재 방제체계 개선 방안’ 도표에서 오타가 발생했다. ‘방제’를 ‘방재’로 수정해야 한다.

프로그램	톡톡 사이다경제		
방송일자	2020. 2. 11.	시청률	0.004

【총 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에 맞서 정부의 전방위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여러 대책들이 마련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차단 총력, 정부 전방위 지원방안은?’이라는 부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대한 국내 경제의 악영향에 대한 설명 및 피해를 입는 중견·중소기업·소상공인·영세상인들에 대한 정부 지원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주었다.

그 밖의 경제&이슈에서는 여행 취소 위약금 분쟁 관련 기준 마련에 대한 이슈를 다루었고 S&News에서는 ‘폐를 끼치다’, ‘언택트의 시대’, ‘진짜 지방자치의 시작’에 대한 정보를 소개해 주었다.

【구성 및 내용】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와 정부 지원방안은?

코로나 피해 현황부터 건강보험 적용, 기업과 소상공인 지원방안, 사재기 문제, 경제영향, 생활패턴 변화까지 다각적으로 잘 다루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세에 따른 경제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에 중소, 중견, 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자금지원, 금리 감면 등이 이뤄진다.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위한 지원은 전통시장 상인의 경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며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저금리 대출 및 특례보증이 제공된다.

■ 경제&이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해외여행 취소에 따른 소비자와 여행사간 위약금 분쟁이 작년 동기 대비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소비자원, 여행업계에서는 정부의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구했으며 정부 당국에서는 표준 약관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 S&뉴스

- 폐를 끼치다. - 민폐의 정확한 뜻은 민폐를 끼치는 주체가 관일 경우 적절하다. 한편 최근 이기적인 행동으로 폐를 끼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모든 폐들이 성숙하지 못한 시민의식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 언택트의 시대 - 기술발전으로 직원과 접촉하지 않고 물건을 구매하는 언택트 소비경향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 감염 경로가 비밀이라고 밝혀지며 온라인 유통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 장기적으로 유지될 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진짜 지방자치의 시작 - 예산과 권한이 아직 중앙정부에 예속되어 있는 지방정부가 많다. 이에 ‘제2차 지방이양일괄법’을 추진하여 중앙정부의 사무와 권한이 지방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자치 경찰제도도 올 하반기부터 실시된다.

프로그램	현장출동 안전이 먼저다		
방송일자	2020. 2. 13.	시청률	0.006

【총 평】

<현장출동 안전이 먼저다> 제20회는 “눈 깜짝할 사이! 어린이 안전주의보”가 방송돼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함께 정보 제공, 대비책 제시로 시청자 만족도를 높였다. 어린이들의 안전사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야외 활동이 늘어나고 새학기 학용품과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시기여서 시의성에 맞는 기획이었다.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사고 사례, 유형, 원인, 주의점, 방지대책, 사고발생시 대처 요령 등을 다각도로 분석한 구성이 메시지 전달력을 제고했다. 또한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히 출동하는 119 구조대의 활약상과 사고 예방을 위해 힘쓰는 공직자들의 노고를 알린 점도 긍정적이다. 특히, 주의력이 낮고 활동성이 강한 어린이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부모들의 세심한 돌봄과 자녀 안전교육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점도 주의 환기 차원에서 적절했다.

【구성 및 내용】

<현장 출동 안전이 먼저다> 제20회는 “눈 깜짝할 사이! 어린이 안전주의보”로, 활동력이 많아지는 해빙기의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해 집중적으로 취재하였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 하나도 무기가 될 수 있고 유해한 물질이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어린이 안전 사고는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고 있다는 점에 경각심을 갖게 하였다.

어린이 안전사고가 전체 안전사고의 33%를 웃도는 2만2천여 건이나 발생하는 시점에서 어린이 안전사고의 유형, 원인, 주의점, 예방 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 기획이 탁월했다. 어린이 장난감과 관련하여 유해 물질 검사 및 안전성 유해 검사를 철저히 단속 적 발하는 과정과 수입 어린이 용품중에서 캐릭터 제품과 문구류에서 기준치보다 큰 환경호르몬이 발생된 세관 적발의 수입 부적합 사례를 보여주어 안전성 검사에 대한 신뢰감을 주었다. 특히 피부에 닿거나 삼킬 경우 신장과 생식기 장애 유발이나 피부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유의사항 정보를 제공하여 구입 시 꼼꼼히 확인하여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또, 키즈 카페 시설중 특히나 주의해야 할 장난감들인 단추형 건전지, 작은알맹이 장난감, 자석 등이 비치되었다면 삼킬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므로 각별히 주의하도록 보호자들에게 경각심을 주었다.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주요 장소, 미끄러지거나 넘어져서 다치는 어린이 안전사고, 장난감이나 놀이터에서 끼이거나 눌림으로 인한 상해 사고 등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지는 안전사고 노출 관련 다양한 이유,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보상 청구가능성을 알려주었다. 어린이 놀이터 안전사고와 장난감 안전사고 위주로 구성된 내용은 안전기준을 벗어난 제품 생산자들의 비양심적으로 빚어진 어린이 안전사고, 부주의에 따른 어린이 안전사고 원인, 부딪힘, 추락, 눌림, 끼임 같은 상해 사고 유형, 연령별 주요 사고 내용,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등이었다.